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4호 [루체 제23306호] 주제99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천출명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강군으로 위용떨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일심 단결

신문이 글 게재, 방송들 보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우루파이, 에질트신문이 기념
글을 게재하였다.

우루파이신문 『후베이도』
5일부는 『김정일최고사령관
의 무력관, 총대의 위력을 사
상과 신념의 위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군인 중심의 무력
관』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
중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
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
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건설과
활동에서 군인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통찰한 사상론』
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
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투
지 무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그러한 군대
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확신하고 전쟁하는 근본
요인은 군인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

인민군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기우는데 가장 선자
적인 힘을 넣으으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평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군인대중에 대한 정
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
화하여 군대내에 사상적 일치성
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셔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
사상진지와 군사진지가 백방으
로 다져지고 강성대국건설의 전
환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은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전군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전국가적방위체
계를 확립하였다.

오늘 조선사회 일심 단결은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로 써 애신 문과 기네 방송들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로 써 애신 문 『웰스까야 취
즌』 5일부는 『나리의 방위
강화로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오늘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 속에서도 불패의 강국
으로서의 위용을 떠나며 사회주의
의 힘으로 친선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계획 동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김정일평도자께서는 국방력강
화에 천차차인 힘을 기울이시
며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인민
군대를 그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훈련
을 계속하여 준비시키고 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속에서 발
휘되는 조국과 민족, 동지에 대한
충성과 신념으로 군인에게
높이 평가해주시고 군인에 따라
배우도록 적극 내세워주셨다.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
은 전체 장병들이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끊어지고 혁무기
로써 깨뜨릴수 없는 대외의 사상
의지적 단합을 이루하게 되었다.

에질트신문 『알 라이』 6
일부는 『김정일최고사령관과
불패의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그이께서는 전군의 모든 지

휘관들이 주체전법으로 철저히
최고사령관으로 모시는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소동속에
서도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
게 전진하여 줄을 있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조
선인민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
사상진지와 군사진지가 백방으
로 다져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
환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다.

김정일회고사령관은 혁
명의 평도로 조선은 혁
명의 주체라는 것, 군인
대중에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군대의 전투력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
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을 틀어쥐
고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
념의 강군으로 키우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온라인에서는 군인에 대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이룩하였다.

특수한 무력 판을 지니신
김정일회고사령관은 조선인
민군은 편승불패의 혁명무력
으로 길이 위용떨칠 것이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군인중
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기네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
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
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젊은 나이에 현대 군사과학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도서
들을 접하고 그와 관련한
고전적인 저서, 담화들을 발표
하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建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자신의 아들들로써 이기시켜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
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혁명적
개성을 살피고 함께 힘을
합친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로 써 애신 문과 기네 방송들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의 높임없는
군현지지 찰의 나날들에는 병
사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새움은 총이 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이 한다는 것, 군인대중
은 무장력 구성의 기본요소이며
혁명전쟁의 주체라는 것, 군인
대중에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군대의 전투력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
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을 틀어쥐
고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
념의 강군으로 키우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온라인에서는 군인에 대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이룩하였다.

특수한 무력 판을 지니신
김정일회고사령관은 조선인
민군은 편승불패의 혁명무력
으로 길이 위용떨칠 것이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군인중
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기네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
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
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젊은 나이에 현대 군사과학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도서
들을 접하고 그와 관련한
고전적인 저서, 담화들을 발표
하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建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자신의 아들들로써 이기시켜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
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혁명적
개성을 살피고 함께 힘을
합친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로 써 애신 문과 기네 방송들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의 높임없는
군현지지 찰의 나날들에는 병
사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새움은 총이 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이 한다는 것, 군인대중
은 무장력 구성의 기본요소이며
혁명전쟁의 주체라는 것, 군인
대중에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군대의 전투력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
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을 틀어쥐
고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
념의 강군으로 키우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온라인에서는 군인에 대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
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이룩하였다.

특수한 무력 판을 지니신
김정일회고사령관은 조선인
민군은 편승불패의 혁명무력
으로 길이 위용떨칠 것이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군인중
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기네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
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
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젊은 나이에 현대 군사과학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도서
들을 접하고 그와 관련한
고전적인 저서, 담화들을 발표
하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建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자신의 아들들로써 이기시켜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
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혁명적
개성을 살피고 함께 힘을
합친다.

김정일회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로 써 애신 문과 기네 방송들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회고사령관의 높임없는
군현지지 찰의 나날들에는 병
사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일심 단결

신문이 글 게재, 방송들 보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에 즈음하여

우루파이, 에질트신문이 기념

글을 게재하였다.

우루파이신문 『후베이도』

5일부는 『김정일최고사령관
의 무력관, 총대의 위력을 사
상과 신념의 위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군인 중심의 무력
관』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
중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
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
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건설과
활동에서 군인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통찰한 사상론』
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
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투
지 무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그러한 군대
는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확신하고 전쟁하는 근본
요인은 군인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무력관을 정립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

인민군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기우는데 가장 선자
적인 힘을 넣으으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평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군인대중에 대한 정
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
화하여 군대내에 사상적 일치성
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셔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
사상진지와 군사진지가 백방으
로 다져지고 강성대국건설의 전
환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혁
명의 평도로 조선은 불패의 강국

으로 길이 위용떨칠 것이다.

3일 기네 국내 방송은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중
심의 무력관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기네 국제방송, 7개 민족어방
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
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젊은 나이에 현대 군사과학의
정수를 담은 수많은 도서
들을 접하고 그와 관련한
고전적인 저서, 담화들을 발표
하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군建설과 활동에서 군인대중이
자신의 아들들로써 이기시켜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
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혁명적
개성을 살피고 함께 힘을
합친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가는 미더운 실천가

최고인민회의 제 1 1 기 제 4 차 회의에서 문영선동무는 카운터 앞날에 공장의 생산 능력을 훨씬 높일 것을 결의하였었다. 그때로부터 4년이 흐른 오늘 공장의 생산 능력은 7억 2종 3대 혁명불을 창성하였다. 놀라운 비약과 자랑스러운 혁신을 이루고 열마진 2종 3대 혁명불은 기기를 생활 위한 공장의 성과 속에는 통이 크게 작정하고 이와 함께 실천해가는 지배인 문영선동무의 혁신적인 노력이 것들에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군人们에게 있어서 보람 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 해전 어느 날이었다. 초급당비서와 마주쳤던 문영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치으며 경제도 성차지 암고 알기 어렵게 지배인을 보고 기사장은 하루에 틀풀 광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문영선동무가 서 있었다.

흙이 드러진 질통을 등에 지고도 성차지 암고 알기 어렵게 지배인을 보고 기사장은 하루에 틀풀 광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드리운 기쁨을 드리고는 가고 하였다. 그러자 문영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공장을 빼리 일며 세워야 경에 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영광의 날이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며칠 밤을 새우며 그린 공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후에 지었던 낡은 단층건물을 풀체로 들어내고 면세제를 던져온 3층짜리 생산건물이며 회의실과 사무실들이 있는 보조건물들, 문화회관시설들… 평범한 전쟁로병의 맷돌을 공부시켜 조선로동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실직으로 보답하기 위해 아글라타는 지배인의 지향과 의지가 그대로 비껴 있는 전당도였다.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

재, 목재와 블록은 제가 맡겠습니다.』

초급당비서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우리 손을 맞잡고 현대적인 공장을 보람듯이 일며 세우고 경에 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말하였다.

다음날 공장정문에 지배인이 그린 전당도가 큼직하게 나붙었고 건설이 시작되었다. 하루

생산을 풀면 종업원들은 누구나 기초골착공사장에 달려나왔다.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문영선동무가 서 있었다.

흙이 드러진 질통을 등에

지고도 성차지 암고 알기 어렵게 지배인을 보고 기사장은 하루에 틀풀 광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드리운 기쁨을 드리고는 가고 하였다. 그러자 문영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공장을 빼리 일며 세워야 경에 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영광의 날이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지배인의 뒤품을 바라보는 기사장의 눈앞에는 신홍군의 산판에서 목재를 실어오던 며칠 전 밤이 되어들었다. 목재를 가득 실고 평을 넘던 차

등차에서 그만 멈춰서

되었다. 판용수가 끊어졌던 것이다. 운전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영선동

무는 한 토목과 함께 끊어진

판용수를 메고 30리나 떨어진 마을을 향해 떠났다. 운

판에 눈이 쌓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조차 어려웠다. 몇번이나 발을 헛디뎌 산비탈에

굴러떨어졌지만 끝내 목적지

에 당도했다. 눈썹에 까지 생에 하얗게 불린 지배인을 알 아본 리의 일꾼들은 감동을 금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장기획작업반원들은 한사람같이 달려나와 끊어진 판용수를 풀고 연마까지 해주었다.

이런 이악한 일본새로 문영선동무는 세멘트가 모자라면 천내리와 부래산으로 달려갔고 강제가 모자라면 성강에까지 가서 강제를 심고 왔다. 석탄때문에 세멘트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당을 향해 판용수를 풀면 종업원들은 누구나 기초골착공사장에 달려나왔다. 그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문영선동무가 서 있었다.

흙이 드러진 질통을 등에

지고도 성차지 암고 알기 어렵게 지배인을 보고 기사장은 하루에 틀풀 광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드리운 기쁨을 드리고는 가고 하였다. 그러자 문영선동무는 얼굴에 웃음을 치며 말하였다.

『공장을 빼리 일며 세워야 경에 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영광의 날이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지배인의 뒤품을 바라보는 기사장의 눈앞에는 신홍군의 산판에서 목재를 실어오던 며칠 전 밤이 되어들었다. 목재를 가득 실고 평을 넘던 차

등차에서 그만 멈춰서

되었다. 판용수가 끊어졌던 것이다. 운전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영선동

무는 한 토목과 함께 끊어진

판용수를 메고 30리나 떨어진 마을을 향해 떠났다. 운

판에 눈이 쌓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조차 어려웠다. 몇번이나 발을 헛디뎌 산비탈에

굴러떨어졌지만 끝내 목적지

에 당도했다. 눈썹에 까지 생에 하얗게 불린 지배인을 알 아본 리의 일꾼들은 감동을 금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장기획작업반원들은 한사람같이 달려나와 끊어진 판용수를 풀고 연마까지 해주었다.

그때부터 공장에서는 자투리 천과 가위방으로 해마다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이 먹을 것을 보았다.

언제인가 공장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시의 한 직장을에 점을 때렸다.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이 것 드는 소비품들이 자동차에 실려

공장밖으로 나갈 때마다 문영선동무의 가슴은 인민을 위해 고보를 드리고 궁지로 설레이 고 있다.

원은 주동무에게는 자기가 일원하였을 때 많은 보약을 가져왔던 지배인의 정깊은 모

온 공장에 실을 더 짧게 끊어

새겨져 있고 주은희, 김

현숙동무들은 자기들이 해산

하였을 때 지배인이 미역국에

에 기우까지 안겨 주면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기술자인 한동

무에게는 기술로써 당시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걸음을 걸어

어준 지배인에 대한 추억이 굳다.

우리 지배인, 우리 대의원이라는 종업원들의 대정한 부름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은 그에 있어서 중요한 파업의 하나이다.

얼마전 황홍시 회상구역 수동리에 데지목장이 일떠섰다.

문영선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일며 세운 목장이다. 수십마리의 돼지들이 옥설거리를 목장

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품을 생산하고 나오는 가위방도 아까와 솔라는 기계를 해결하여 많은 숨을 생

산하고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종업원들에게 매달 고기공급을 정상화하였다.

문영선동무는 지휘관이 전에 혁명동지라는 판정에서

종업원들을 대하고 이끌어주고 있다.

지배인은 그날 생산총회에

작업반마다 실질적 도표를 만들 어 내붙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공장에 실을 더 짧게 끊어

새겨져 있고 주은희, 김

현숙동무들은 자기들이 해산

하였을 때 지배인이 미역국에

에 기우까지 안겨 주면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기술자인 한동

무에게는 기술로써 당시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걸음을 걸어

어준 지배인에 대한 추억이 굳다.

우리 지배인, 우리 대의원이라는 종업원들의 대정한 부름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은 그에 있어서 중요한 파업의 하나이다.

얼마전 황홍시 회상구역 수

동리에 데지목장이 일떠섰다.

문영선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일며 세운 목장이다. 수십마리의 돼지들이 옥설거리를 목장

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품을 생산하고 나오는 가위방도 아까와 솔라는 기계를 해결하여 많은 숨을 생

산하고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종업원들에게 매달 고기공급을 정상화하였다.

문영선동무는 지휘관이 전에 혁명동지라는 판정에서

종업원들을 대하고 이끌어주고 있다.

지배인은 그날 생산총회에

작업반마다 실질적 도표를 만들 어 내붙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공장에 실을 더 짧게 끊어

새겨져 있고 주은희, 김

현숙동무들은 자기들이 해산

하였을 때 지배인이 미역국에

에 기우까지 안겨 주면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기술자인 한동

무에게는 기술로써 당시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걸음을 걸어

어준 지배인에 대한 추억이 굳다.

우리 지배인, 우리 대의원이라는 종업원들의 대정한 부름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은 그에 있어서 중요한 파업의 하나이다.

얼마전 황홍시 회상구역 수

동리에 데지목장이 일떠섰다.

문영선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며 세운 목장이다. 수십마리의 돼지들이 옥설거리를 목장

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품을 생산하고 나오는 가위방도 아까와 솔라는 기계를 해결하여 많은 숨을 생

산하고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종업원들에게 매달 고기공급을 정상화하였다.

문영선동무는 지휘관이 전에 혁명동지라는 판정에서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식당과 청량리음료점을 비롯한 사회급양식점들을 대대적으로 늘여야겠습니다.』

역사의 강 압록강이 굽이

쳐가는 그 평양에 세 국수집을

이번 들판에 일어서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 있다.

새 국수집은 군인의 민족

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여행자에게는 국수집을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금시 날마다 한 모양의 우아한 소식집이나 봉지에

있는 믹족적 형식의 건축물들이

국수집에는 현대적인 봉지에

우리 국수집에 있는 현대적인

국수집에는 현대적인 국수집

에는 국수집에 있는 현대적인

국

반전평화의 가치를 더 높이 추구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가 지금처럼 침에하게 제기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외세와 악한 피의회 전쟁과 부침 전쟁도 밭을 날을 때마다 더욱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정세는 점점 경계로 치닫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온 거래로 하여금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피의회 전쟁과의 새 전쟁 도발책 등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로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사활적 과제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북침을 위한 전초기지로, 대조선 침략정책 실현을 위한 교도보로 전략적 위치를 차지했다. 미국이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침략책 등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대로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이 되어 북침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최근 연평도 도발 사건을 일으킨 피의회들은 그 누구의 「무력도발」에 대해 장상태를 국도로 청에 회시시키고 있다. 반역 무리를 떠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대결 전쟁 패기를 부리고 있다. 열마전 피의회 전쟁과는 핵공포 포함 『조지 위성』 호를 비롯한 미제 침략군 합선을 향으로 선서해에 끌어들인 가운데 대규모적인 협동 전쟁 불장난 소동들을 적으로 강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풍지박산나고 대화와 협력 사업들도 카타랑 암초로 떠나게 되었다.

대화 일방을 반대하는 요란한 총포성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긴장시키고 6. 15 통일 시대를 뒤집어엎으려는 것

이 피의회당의 흥악한 속심이다.

이번 연평도 도발 사건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최근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 위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남측과 적십자회 담당자 가지고 훌어진 가족, 친척 상봉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6. 15 통일 시대를 전진시키고 나가려는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의 발현이었다. 그로 하여 대화와 협력의 기운이 조성되었다. 온 거래는 그것이 북남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평화 보장은 6. 15 통일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키려는 노력이다.

6. 15 통일 시대를 전진시키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을 통일하는 민족적 파제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현 남조선 전선권 세력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보수당국이 외세의

전쟁사관군의 대결 전쟁책 등으로 말미

지 않았다.

남조선 토지배들은 빠른 대로 외세를 등

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협박 기도밀에 미군과 아합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처 뛰어냈다. 특히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을 우리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하고 살벌한 대결방법을 일으켜왔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 방위체계에도 적극 가담

1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 전보적인 류는 항일의 너성영웅이 신김정숙여머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한껏 터치고 있다.

빨찌산너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만민의 한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송고한 사상감정은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행사들과 출판보도물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해 민족보어인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2돐에 즐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토론회, 강연회, 사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에티오피아 청년주체사상 연구위원회 아티스 아바마 예까지 부소주 조경에서는 1917년 12월 24일은 조선인민이 항일의 너성영웅으로 걸이 흥모하는 김정숙여사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양하였다.

한편 단마르크, 브뤼셀, 몽골에서 진행된 집회들에 참가한 단마르크공산당,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브뤼셀조선협회,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럼》유한책임회사 성원들은 12월 24일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기들에 있어서도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김정숙여사를 축하하는 행사를 전개하였다.

일찍이 항일성전에 나서신 나사께서는 춤엄한 결전장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투사이시다. 나사는 수령의 사상과 정도를 어떻게 떨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 준 위대한 귀감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해방파 새 조선건설위업에 불멸의 공원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네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파키스탄과 도이췰란드, 우간다에서 진행된 토론회장들에서도 항일의 너성영웅이 신김정숙여사께서 탄생을 맞으신 때로부터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인민이 김정숙여사를 그토록 경도해 마지 않는 것은 나사의 생애가 현대 조선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사를 떠나 사회주의 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과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나사의 존함은 김일성조선, 김정일조선과 더불어 영원히 높아 청양하였다.

일찍이 항일성전에 나서신 나사께서는 춤엄한 결전장을

위인칭송의 목소리

계속하여 신문은 김정숙동지께서 발휘하신 수령에 대한 충실히는 참으로 무한대 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조국이 해방된 이후에도 그이께서는 나라의 교육, 보건, 너성운동 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셨으며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놓아 우러러 모시고 있다.

그들은 김정숙여사를 <항일의 전설적장군>, <위대한 어머니>라고 칭송하고 있다.

만마신문 《포퓰리저널》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과 백두산너장군의 사진을 모시고 운공 한면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1917년 12월 24일에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 신김정숙여사께서 탄생하시었고 하면서 계시어 조국에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조국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가하시여 백두산너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며 대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위업을 맡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기념글을 제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비록 걸지 않았으나 그이의 생은 인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백두산너장군에 대한 열렬한 흡족감을 떨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시어 조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그이에 대한 열렬한 경모심과 절절한 그의 음성을 암고 백두산너장군,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의 명령에 와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터치고 있다.

수리아신문 《알 바이스》도 12월 24일은 조선혁명에 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는 항일의 너성영웅이신 김정숙여사의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들어기보게 된다.>

일찍이 항일성전에 나서신 나사께서는 춤엄한 결전장을

본사기자

친란한 미례를 생각할수 있다.

나사께서는 김정일령도자를

만순한 협육으로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참다운 아들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위업의 충직한 제승자로

기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다.>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오늘 세계 진보적인 류

는 그이에 대한 열렬한 경모심과

그의 음악을 암고

백두산너장군,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의 빛나는 명령에 와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터치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

『전설적장군』, 『농란한 정치활동가』 등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계시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열렬한 흡족감과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터치고 있다.

『전설적장군』은 <농란한 정치활동가> 등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계시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열렬한 흡족감과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터치고 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 화첩, 수공예 품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에는 조선청년학생대 표단이 토론회에서 조선식사회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 17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제 17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